

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신임 회장 "변화 추구할 것"

교사 수준 향상 위해 한국정부 지원 절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7/20 05:40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와 1200여개 한글학교로 구성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8대 총회장에 워싱턴 지역 한인 이승민씨가 선출됐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8월까지다.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제34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이승민 신임 총회장은 “한국학교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의 추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한인 2,3세는 물론 주류사회에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대해 “미주의 경우 NAKS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발전해 나아가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이 강화돼 교사들의 질적 양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3년 새한한국학교 교사로 한인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첫 발을 디딘 이 회장은 새언약한국학교 교장, 워싱턴지역 협의회 총무,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워싱턴지역협의회 한연성 회장은 “이승민 부회장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교사들은 물론 지역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라면서 “워싱턴 지역협의회장으로 봉사하며 보여줬던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